

내 친구
- 병(病)

최 동 현

서로 거들떠보지도 않고 얼굴도 몰랐는데
세월이 익어가는 언제부터인가
오래전에 알았던 것처럼 끈질기게 따라다닌다.
헤어지려고 떼어내려고 떠밀고 사정해도 소용없다
사랑한 적도 좋아한 적도 없는데

떠났나보다 하면 숨은 발톱이 보이고
사라졌나보다 하면 꼬리가 문틈에 걸려있고
이제는 멀리 갔겠지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
옆구리를 콧코크 찌른다
좀처럼 멀리 가지 않고 점점 더 바짝 붙으려 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던가
어차피 떼어내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는 혹이라면
내 분신이라 여기며 가까이 지내기로 했다
아프게 밀어내지 말고 밍더라도 다독이며 가자
거북하고 꺼림하더라도 감싸 안고 보듬으며
남은 생 저 뒤편까지 동행해야 할 내 친구다

친구는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 온 사람을 말한다. 이제는 사귀지 않아도 오래도록 가까이 있다 보면 친구가 되나보다. 싫어도 쫓아내지 못하고 떨어지지 않으면 마치못해 친구라며 붙어 지낸다니 몹쓸 세상이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해코지할까봐 땔 수도 없으니 별 수 없다. 나이 들어 건강에 문제가 생겨 발병하면 잘 낫지도 않고 힘들다.

그 흉악한 암이라는 병도 함께 잘 살라는 처방이 있다. 서로 이기려 하지 말고 감싸 안고 보듬어 동행해야한다니 친구가 아니고 뭔가, 병하고도 친구 삼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니 무엇이든 지 내 맘과는 상관없이 잘 견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애초부터 그런 것을 모르고 이제야 알았다. 남은 생 저 뒤편까지 동행해야 할 내 친구다.(윤제철)

프로방스와 헤이리 예술마을

이 숙진(수필가)

프로방스는 프랑스 동남부 이탈리아와의 경계에 있는 지방으로 지중해 기슭에 있는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다. 이 프로방스를 본 따서 만든 공간이 파주에 생긴 프로방스다. 프랑스 레스토랑을 시작으로 정원, 벽화, 유럽풍 베이커리, 카페, 이탈리아 레스토랑, 체험시설 등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 테마형 마을이다.

조명이 많이 설치된 것을 보니 밤에는 빛 축제 같은 분위기도 볼 수있을것 같다.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에는 종일 주차요금이 2,000원이다. 쇼핑도 느긋하게 즐기고 분위기에 젖어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입구 작은 정원이 아주 앙증맞다.

소규모 작은 결혼식을 할 정도의 로드 아취형 집도 귀엽다. 이삼십년 전에는 획기적인 공간이었음직 하다. 지금은 코로나 19의 영향도 있지만 주중이라 그런지 상권이 많이 가라앉은 모양새다. 우리 일행은 이곳저곳 아이쇼핑을 즐기다가 예쁜 냅킨도 사고, 마스크팩도 사고, 세라믹 접는 휴대용 컵도 구경하며 편리함에 놀란다. 여행용 크로스백이 필요해서 찾아보니 천으로 된것이 귀하다. 마침 적당한 물건을 발견하고 일행 모두 하나씩 사서 목에 걸었다. 이 크로스백이 필요한 것은 여권과 휴대폰과 작은 물병 하나 파라솔까지 들어가니 금상첨화다. 파라솔은 꼭 들어가지는 않지만 꼽을 수는 있으니 그게 어딘가. 늘 생각만 하다가 마침맞게 구입하게 되었다. 가볍고 세척할 수 있으니 천으로 된 것이 좋은 이유다. 외국여행시 그 지방의 바이러스나 기생충도 염려가 되니 다녀오면 무조건 세탁하는 것이 제 일의 조건이다.

우리는 각자 휴대폰과 양산을 넣은 백을 크로스로 메고 풍기 인견집에서 이것 저것 쇼핑을 하고, 사장님이 소개해 준 언덕배기 버섯모양의 두부집으로 향했다. 근처 다른 집은 중국산을 쓰는 집이 많은데 비해 그 집은 직접 두부를 국산콩으로 만든다는 전언이다. 흠이 아주 넓직하여 우선 기대가 커진다.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도토리묵 냉채가 상큼하고 엄지적이다. 나는 비지찌개를 시켜 완전 단백질에 젖을 요량이다. 대나무 직사각형 그릇에 담아 낸 순두부는 건강해지는 맛이다. 순두부 각 한장씩 나온 것도 유년에 집에서 만든 엄마 맛이다. 포만감에 괴로울 즈음 도토리묵 냉채 더 드릴까 하는데, 모두 절레절레 머리를 흔든다. 아무리 맛난 것도 포만감에 시달리면, 거부감이 온

다. 애초에 더 달라고 부탁한 것이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생체 리듬 탓이었던 거다. 우리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쾌적해진 탓에 슬슬 걸어서 헤이리 마을 게이트 원으로 들어갔다.

한 바퀴 돌아 나오다가 모자집이 많아 이집 저집 돌다가 아주 멋진 집에서 일행 언니가 아주 잘 어울리는 모자 하나를 구입했다.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옛날 나지리노인지 샤프린느였는지 어느 영화에서 본 배우같다. 그 언니는 크로스백도 진청색을 사더니 모자도 짙푸른 청색이다. 둘의 매치가 딱이다. 확실한 취향저격이다. 매우 보람 있는 쇼핑이 되었다. 우리는 기분은 좋지만, 더워서 빙수가게를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가는 곳마다 클로즈만 보인다. 주중이라 오픈하지 않는 것 같다. 이랜드 갤러리 옆 빙수가게를 발견하고 뛰어갔더니 오픈인데 문은 굳게 잠겨있다. 실망하여 두리번거리다가 이랜드 갤러리에 그림 보러 가자고 하여 들어가니 아직 오픈하지 않았고, 지금 설치중 이란다. 그래도 들어와 보시라고 안내하는 청년이 설치 기사라는데 아주 헌심하고 친절하다. 커다란 홀에 그림 작가도 최종 점검을 하고 있어서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인간의 욕망에 대한 주제를 다뤘다고 한다.

나리컴퍼니에서 주관하는 전시회다. 우리가 빙수 가게를 찾는 것을 본 설치기사가 갤러리 사무실에 안내하며 시원한데서 쉬시다 가시라고 한다. 넓직한 사무실에 외국 화가들 그림이 잔뜩 전시된 공간이다. 차갑게 식힌 예비양 네 병을 접대하며 그림도 감상하고 마음껏 쉬시라고 친절을 베푼다. 와우! 아직은 살만한 세상! 이렇게 친절한 청년이 있다니! 우리의 감사 인사에 “저의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저의 어머니 같은 연배신데, 이렇게 갤러리에 관심을 주시니 너무 감사해서요.” 하면서 경의를 표한다. 황후의 대접을 받으니 걸었던 피로가 싹 날아간다. 기분좋은 하루다. 예비양을 보니 옛날 동남아 여행갔을 때 길잡이 안내를 잘 안듣고 떠들다가 호텔에서 예비양 물을 가지고 나왔다가 16분을 내야했던 웃지못할 추억이 생각 나 그 얘기로 한참 웃었다. 그 16분짜리 예비양을 대접 받았으니 더 귀했지 싶다.